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9월 28일 (제76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성냥불이 나라를 태우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일이 큰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이를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나비효과는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기 때문이다.

나는 올 7월 아르헨티나 뽀사다스에서 파라과이 엔까르나시온으로 국경을 넘는 중, 지체되고 있는 차 안에서 이현숙 선교사에게 청소운동을 전제하자고 제안했었다. 내 말을 들은 이 선교사는 즉시 빗자루와 쓰레받기 300개, 쓰레기봉투 등을 준비했고, 한국에서 보낸 구호물품 중에서 조끼를 개조하여 성도들에게 입혔다.

이 운동은 파라과이 엔까르나시온 거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약 200여 명이 두 조로 나뉘어 도시의 거리 및 공원주변을 청소하였다. 이것을 본 시민들은 물론 매스컴에서도 기사로 다루는 등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 베네수엘라 집회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 청소운동이 널리 퍼져 매주 월요일 9시에서 12시까지 각처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작은 성냥불이 온 도시를, 나라를 태운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우리의 평화통일 기도성회도 이런 효과를 낳았으면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이 작은 기도의 불씨가 온 나라에 퍼져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꿈같은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파라과이·우루과이 청소 캠페인 포스터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전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가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었다. 우리 인생은 홍해 같은 문제에 늘 부닥치게 되는데,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셨다.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쉬운데 실천하지 않기에 신앙생활이 버거운 것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고 날마다 말하지 않는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카라카스를 떠나기에 앞서 에드가르(Edgar) 전 경제부장관 겸 중앙은행총재 부부가 찾아왔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던 차였는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는 그를 보니 적이 안심이 되었다.(관련기사 4면)

다. 목사님은 작심하신 듯 방송인터뷰 자리에서 집회관계자들을 옆에 앉혀놓고 강력하게 질타하셨다.

“전쟁을 앞둔 장수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있으니 어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집회비용도, 호텔비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베네수엘라 발렌시아(Valencia) 집회 광경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Venezuela) 카라카스(Caracas) 도착 일성으로 루이스(Luis) 목사 교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다.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선포해놓고 여전히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루이스 목사부터 전 성도가 교회건축이라는 문제만 바라보다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셨고,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목사님은 기회

두 번째 집회가 열리는 발렌시아(Valencia)는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중북부 카라보보(Carabobo) 주(州)의 주도로 베네수엘라 제 3의 도시이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주관한 발렌시아의 루이스(Luis) 집사가 비용문제로 심각해 있었다. 멕시코(Mexico)까지 찾아왔을 때만해도 10만 이상을 모을 수 있다며 호기롭게 굴던 그였는데, 도대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는 세미나가 열리는 마라나타(Maranatha) 교회의 담임목사가 현금을 못하게 한다고 끌탕하며, 그저 돈 걱정이 앞서보였

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목회 30년 동안 이 자세를 견지했기에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진행된 방송인터뷰는 목사님과 이 선교사의 찜찜 찜찜한 목소리로 진행되었고, 호텔을 찾은 사람들조차 이에 압도되어 눈이 동그해진 채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집회 (루이스 목사 교회)



발렌시아 지역 TV 및 라디오 방송인터뷰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3:1~9)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몇%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답할까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에 5.35점을 얻어 36개국 중 27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문화 혜택도 누릴 만큼 누리고, 살 만큼 사는데요. 이는 행복이란 결코 육적인 것을 채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이 채워지면 편리해질 뿐,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 중에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 건강치도 않은데 행복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찡긐 찾아봐도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구비되지 않았는데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께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분 말씀이 “그냥 행복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이 말이 정답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왜 행복하냐는 질문에 그냥 행복하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왜인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복될진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전도서에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했지요? 그냥 살아 있는 것도 복인데,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냥 행복할 수밖에요. 그

복이 복인줄 알아야 복이 된다

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복이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우겨지 밥상 얼굴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울창이 시절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불행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사51:1).

그럼 우리가 있었던 우묵한 구덩이가 어떤 곳인지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

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엡2:11~12).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려진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구원은 9절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당연히 눈물이 나도록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이며, 이것이 건강하지 않아도, 조금 힘들더라도,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그냥 행복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행여 자기로 하여금 예수 밖으로 나가게 할까 해서입니다. 그것을 좇아 하나님 밖으로 나갈까봐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3:8~9).

바울은 유대교에서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거리 삼았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3:4~6).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이전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이요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배운 바리새파라는 것들이 예

수 안에 사는 행복의 결집들이라고 여겨 배설물 버리듯 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부귀나 지식이 당신을 자꾸 예수 밖으로 유혹합니까? 바울처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발람처럼 그것을 좇아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버림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이유인즉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삼상8:7~8).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 특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기만 있으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세운 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를 위해 고역을 감당했으며 마침내는 왕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하면 (think) 감사할 수 있다(thank)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리 대하냐며 하나님께 자주 대들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특별은총입니다. 아무나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만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의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행복을 안다면,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더는 순교의 길을 묵묵히 간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만으로 감사한 당신은 분명히 “네”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악이 된 소금

몇 달 전, 남편의 스승님이 하시는 한의원에 들렀었다. 상담 중에 원장님은 내게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다. 그 분의 이야기는 나의 정곡을 찔렀다. 왜냐하면 신장수치가 좋지 않았던 나는 짜지 않게 먹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었다. 염분섭취를 줄이려고 국물종류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요즘 사람들이 염분 과잉 섭취를 두려워하여 염분을 너무 섭취하지 않아서, 혼수상태로 병원에 실려 가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나 역시 탈수에 늘 시달려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처럼 만성적으로 염분이 부족하면 혈중 나트륨 이온 농도를 낮은 수준으로 일정 범위 유지하려고 몸이 변화하는데, 가령 물과 함께 섭취한 염분은 신장에서 물보다 소금을 먼저 배출시킨다. 그런데 신장에서 배출시킬 염분이 부족할 때는 신장조직에서 물이란 물은 다 배출시켜서 탈수에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장시간의 상담 끝에 결국 나에게는 물과 소금섭취가 처방전으로 내려졌다.

생각해보니 나는 하루 물 한 컵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처방대로 입안에 소금을 물고 침으로 삼켜보기도 하면서 일주일 후에는 소금과 함께 물을 남들처럼 섭취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신장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탈수 증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처방이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었다. 그 작은 양의 소금이 혈관 속까지 침투하여 수분을 채워 탈수를 예방하

다니.... 금식기도원에 가보면 소금을 주지 않던가! 링거란 것 역시 희석한 소금물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인정하신 식품이 바로 소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 해답은 저주고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는 것과 저주는 것은 다르다. 지는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패하는 것이지만, 저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상대에게 양보해 주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녹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며, 이길 수 있지만 저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며 맛이 나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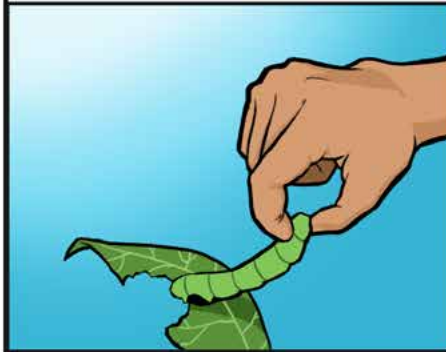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삶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미덕을 발휘할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결과적으로 주님께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열매 맺기까지

신앙에 해된 것을 제하고



인내하는 것은



허락하신 때에 이르러
반드시 열매맺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To Be Succeed::

복 받은 세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 출신으로 최연소 여성 총리이자 지난 해 3선에 성공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녀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는 달리, 카리스마도 유머도 없을 뿐더러 18년째 같은 블라우스를 입을 만큼 패션 감각을 지니지도 않았다. 그런 그녀가 2013년 총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다시 총리로 당선된 이유로 엄마와 같이 따뜻하게 품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리더십, 다시 말해 ‘포용의 리더십’을 꼽는다. 그녀는 2005년 첫 취임사에서 반대쪽에 있던 진보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갔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사고가 나자 그동안 원자력을 고집하던 자신의 생각을 온 국민 앞에 과감히 내려놓았다. 그런가하면 독일의 부끄러운 과거인 히틀러 정권 시절을 끄집어내어 민중의 무감각함을 과감히 비판했을 뿐 아니라, 전 독일이 침묵해온 이민자에 대한 테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취임 후에는 16개의 장관직 가운데 핵심 6개의 자리를 반대편에 맡기는 동시에, 25.7%의 국민이 선택한 제1야당의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수용하여 패자가 패자로 머무르지 않도록 끌어안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번번이 자신을 내려놓고, 고개 숙이고, 내어줘도 승리하는 메르켈에게 전 세계는 물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윗은 넓은 마음을 품음으로써 성공하고 존경받은 인물이다. 자신을 질투하여 죽이려 안간힘을 썼던 사울왕의 손자이자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기까지 다윗의 무사귀환만을 기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삼하19:24~30). 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처자들을 끌고 갔을 때, 심히 지쳐 더 나아가지 못했던 이백 명의 군사들에게 나머지 사백 명의 군사들과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하고, 유다 장로들과 그간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낸 것에서도 그의 넓은 마음 씀씀이를 엿볼 수 있다(삼상30:1~31).

오늘날을 인(人)테크의 시대라고도 얘기한다. 사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넉넉하게 끌어안는 통 큰 마음이 있어야 인재를 분별할 수 있고, 나아가 그를 감동시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삼국시대의 영웅인 조조가 원소를 대파하고 화북 지배를 성립할 당시, 자신이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 측근의 신하들이 원소에게 비밀리에 보낸 항복의 편지를 무더기로 발견했음에도 읽지 않고 즉각 불태움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일화에 서도 알 수 있다.

일찍이 아더 제임스 벨포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네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요, 반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용이다.” 그렇다면 어떤이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가? 바로 마음이 넓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다. 죽어야 살고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며, 그것이 끝내 많은 이들을 끌어안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미국의 유명 치킨 샌드위치 업체 ‘칙필라(Chick-fil-A)’의 창업자인 트루엣 캐시가 지난 9월 8일,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경영원칙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칙필라는 지난해 매출 50억 달러로 KFC를 제치고 미국 최대 치킨레스토랑 업체로 올라섰는데, 칙필라는 매장 수가 1,775개로 KFC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매출이 KFC를 웃돌고, 점포당 평균 연 매출이 320만 달러로 KFC의 세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있는 칙필라 매장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경영원칙 1호는 바로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식업체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매출의 3분의 1가량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캐시 창업자는 1967년 창업 때부터 이 원칙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는 “원칙과 신념을 버리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창업자는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주일마다 교회 청소년부 주일교사를 해왔는데,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는 그의 이렇게 확고한 기업철학이 칙필라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과 신념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목사님의 기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에드가르 전 경제부 장관 부부와 함께

십일조 전도사. 여러분이 익히 기억하고 있을, 또한 궁금해 할지 모를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에드가르(Edgar Hernandez Behrens) 전 경제부장관 겸 중앙은행총재에 대한 소식이다.

차베스(Chavez) 전 대통령 서거 후, 전국은행연합회회장으로 영전하기도 했던 그는 신임대통령 마두로(Maduro)의 친정체제가 구축되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바르가스(Vargas) 주의 가르시아(Garcia Carneiro) 주지사도 퇴임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새로운 정권이 취하게 되는 당연한 수순이리라.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 차베스의 후광이 여전히 베네수엘라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보이지만, 곳곳에 그의 대형 브로마이드 사진이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권불십년(權不十年)의 공식은 그에게도 어쩔 수 없이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공항에서 카라카스(Caracas)로 들어오며 들은 소식인지만 한편 그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이튿날 저녁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은 안도가 되었다. 그는 의리가 있는 인물이다. 목사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타국에 나가있지 않는 한, 꼭 찾아와 인사

를 잊지 않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곤 하였다. 지난 방문 때도 집회를 마치고 떠나는 날, 공항 VIP 실까지 찾아와 베네수엘라 국기가 새겨진 해먹(hammock)을 선물했던 그였다. 그때만 해도 아내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다며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만찬에 앞서 숙소로 찾아온 그는 아내와 동행하고 있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앞서 가졌던 생각들이 모두 기우(杞憂)였음을, 하나님은 역시 당신의 자녀를 항상 보호하심을 깨달았다. 부부사이가 완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에 목사님은 정말 기뻐하셨다. 에드가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며 목사님의 기도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식당으로 옮겨 앉은 자리에서 에드가르는 늘 목사님이 처음 기도해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꿈을 간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기도는 에드가르가 이 나라의 최고통치권자가 되는 것이었다. 고로 현재 그의 거취는 미래의 도약과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할 수 있겠다.

목사님은 그들 부부와 루이스(Luis Rodriguez) 목사 및 그의 일행들이 함께 한 만찬석상에서 성경을 찾아가며 가르치셨다. 에드가르의 이름을 데이빗(David)으로 바꿔주며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 있기에 목사님은 꿈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더구나 처음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 예수쓰(Jesus Perez)목사와 함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잠언 11:4)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0:2)

찾았던 승리의 광장 200만 집회의 꿈이 여전히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 목사가 한국까지 찾아와 나라를 건져달라고 간청했던 그 애국적인 기도가 여전히 목사님의 가슴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잠언 10장 2절과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며 의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를 얻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쫓는 무리들이 아니라 진정 어려움이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의리맨을 많이 두어야 성공합니다. 권력이란 화병에 있는 꽃과 같아서 잠시 피다 죽습니다. 실력이란 화분에 핀 꽃인지라 이 또한 화분이 깨지거나 분갈이를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울창한 숲 속에 피어난 꽃입니다. 겨울이 와서 죽은 것 같아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다시 피어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동지적 자세로 어떤 난관도 함께 하는 사람, 바로 의리 있는 사람, 그런 친구를 얻어야 성공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친구를 많이 두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했는데,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발로 차지 말아야 합니다. 꿀통을 발로 차는 순간 애써 모은 꿀도 버리게 되고 꿀을 모아주던 벌은 당신을 쏘고 어디론가 가버릴 것입니다. 즉 사람을 얻으려면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면 몸

을 주지만, 남자가 남자에게 반하면 국가를 건지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와 함께 지구촌을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그의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키워주며 감동을 시키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에드가르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전국에 간증집회를 다니며 사람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쓰여 있었다. 목사님은 포항의 권정미라는 자매가 자기 핸드폰에 미래의 복지부 장관이라 써놓고 다닌다는 것처럼, 데이빗도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셨다.

“끝으로 지혜 한마디를 첨언하는데, 큰 고기를 낚으려면 낚시줄을 늦춰야 당겼다가 하며 힘과 지혜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힘만 가지고 당겨버리면 작은 고기는 끌려와도 큰 고기는 입만 찢어진 채 도망가 버립니다. 따라서 큰 인물을 얻으려면 줌다 당겼다가 하며 힘이 아니라 지혜로 다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만든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건져달라는 루이스 목사의 기도도, 미래를 꿈꾸는 에드가르의 기도도, 베네수엘라를 향한 목사님의 기도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있기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이란?

민호는 모래놀이에 푹 빠진 5세 아동이다. 홀로 심각하게 무언가를 탐색하기도 하고, 종종 양귀를 손으로 쥐고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식사 종이 울리면 친구들은 식당으로 달려가는데 민호는 반응이 없다. 민호는 작년에 실시한 자폐증 평정검사에서 중도-경도 자폐증으로 판명되었다.

13세 철수는 언어표현능력이 거의 없지만, 언어수용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양주먹으로 자신의 관자놀이 부근을 가격하는 자해행동을 보인다. 특히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원치 않는 일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민호와 철수는 증상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자폐스펙트럼 장애진단을 받았다. 자폐스펙트럼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동조절, 언어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뇌의 신경학적인 장애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치료

를 위해 길고긴 인내의 여정을 겪어야만 한다. 치료도 인지, 언어, 작업, 감각, 음악, 심리, 놀이, 약물, 한약, 운동 치료 외에도 수 없이 많은 치료법들이 존재한다. 즉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만 3세 이전의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기에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에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은 다음과 같다.

- ◆ 보통 5개월에 시작하는 웅얼이와 6~9개월에 눈 맞춤이 되는지 살피기
- ◆ 아이가 소리 낸 음을 엄마가 따라하면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가?
- ◆ 10개월 때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거나 반응하는가?
- ◆ 선호하는 사물이나 사물의 한 파트에 집착이 심한가?
- ◆ 무의미한 반복행동을 하는가?
- ◆ 사물을 일렬로 줄 세우거나 정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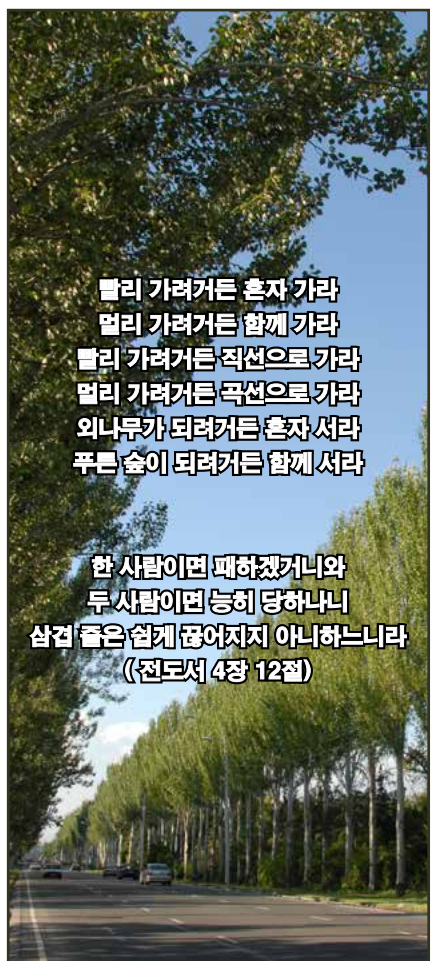
일정의 변화를 거부하는가?

- ◆ 18개월에는 12개 정도의 단어를, 2년이 되면 두 단어 구를 사용하는가?
- 어떤 자폐아동은 18~24개월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이 시기에 멈추거나 퇴행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성인들이 수용시설에서 살았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치료중재서비스로 증상들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질환에 비하여 부모가 치료기관에만 맡기고 한 발짝 물러나는 경향이 있으나 중요한 치료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부모는 최대한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팀워크가 필요하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